소방관 心火, '소방승'이 끕니다

1월 8일 부산서 불교최초 소방승 탄생

영도불교聯 · 항만소방서 MOU
스님 · 정사 등 4명 위촉, 활동
템플스테이 명상 교육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 도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내 최초로 소방관을 위한 소방승이 위촉됐다. 오른쪽부터 복전심인당 주교 석인정사,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최대봉 항만소방서장, 사단법인 용화선문 이사 정명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혜벽 스님.

국내 최초로 '소방승'이 위촉됐다. 소방승은 말 그대로 소방관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마음을 돌보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사고 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안은 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다. 뾰족하게 극복할 방법이 없는 그들을 위해 불교계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소방관들은 협약식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자 그 어느 때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간절함을 드러냈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와 항만소방서(서장 최대봉)는 1월 8일 항만소방서 3층 강당에서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업무협약식(MOU)'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개회 △양 단체장 인사말 △협약 주요내용 설명 △업무협약 서명 및 기념촬영 △소방승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을 통해 영도구불교연합회와 항만소방서는 생명존중을 위한 상호협력과 화재 및 사고 등 주변에서 도사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전문교육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는 소방관들에게 템플스테이 및 명상교육 등을 제공하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참된 마음 회복과 안정을 얻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사찰에 안전교육 및 신도를 위한 응급처치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승은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사단법인 용화선문 이사 정명 스님, 복전심인당 주교 석인 정사가 위촉됐다.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은 무엇보다 소방관을 위한 불교계 첫 소방승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며, 이를 시작으로 소방관을 위한 소방승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했다.

호법 스님은 "오늘 이 협약식과 소방승 위촉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라며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현장에 나간다. 게다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아 그 어떤 분들보다 마음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소방관을 위한 활동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소방승 위촉이 좋은 선례가 돼 더 많은 곳에 소방승이 생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대봉 항만소방서장은 "소방관들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돼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싸워 이겨야 하는데 명상과 마음공부를 통해 앞으로 소방관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영도에 사찰이 60여개가 있고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 도성 스님(태종사 조실) ·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을 비롯해 최대봉 항만소방서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종교 · 시민사회, 남북 관계개선 촉구

KCRP 등 대북제재 완화 기자회견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남북관계를 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를 비롯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은 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어떠한 경우에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조됐던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면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인내하고 대화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 UN과 미국이 취하는 대북제재 조치를 인도적 분야에 한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미국과 북측,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평화행동에 함께해주길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最古 한글 필사 '능엄경' 보물 지정

문화재청 1월 6일 8건 지정공고

고양 원각사 성보博 소장본
여백에 한글 · 한문 주석 빼곡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 자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손글씨 자료를 담은 능엄경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이하 수능엄경)을 비롯해 조선시대 도자기 · 전적과 가야문화권 출토 유물 등 8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보물 제2056호로 지정된 〈수능엄경〉은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경전 중 하나로, 보물로 지정된 경전은 총 10권 중 권 1~2에 해당한다. 현재는 고양 원각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원각사의 〈수능엄경〉은 태조 이성계가 승려 신총에게 대자(大字, 큰 글씨)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한 뒤 1401년(태종 1년)에 판각 · 간행한 것이다.

특히 원각사 〈수능엄경〉은 국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경전의 여백에 붓으로 정교하게 쓴 한글과 한문 주석과 석독구결(釋讀口訣 · 우리말의 조사, 어미 등을 나타내는 토를 붙여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을 표시한 것)이 빼곡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15세기 말까지만 쓰였던 ㅿ(반치음), ㆁ(옛이응) 등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2015년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조사단은 "1461년 이전에 쓴 현존 최고(最古) 한글 필사 자료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15세기에 한문본을 우리말로 번역한 과정이 확인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화재청 역시 "조선의 독자적인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보물로 지정해 연구 ·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1971년 무량사 무량사 오층석탑 해체 수리 과정 중 발견된 금동불상들로 당시 금동보살좌상(1구)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이 확인됐다.

특히 2층 탑신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자료가 부족한 고려 전 · 중기 불교조각사 규명에 크게 이바지할 성보로 평가받고 있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은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보살좌상, 지장보살좌상으로 구성돼 있다. 이 역시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불교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문화재청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으로도 조각기법이 우수하다.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밝혀준 준다는 점에서 역사 · 예술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인 '석독구결'이 빼곡히 담겨 있는 원각사 소장 〈수능엄경〉의 확대 화면.
훈민정음 창제 직후 불교경전을 필두로 한 문본을 우리말로 번역한 흔적이 남아있는 귀중한 자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기부금 단체 지정

후원금 영수처리 가능, 세제혜택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병불련)가 구랍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의 별도지정을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수익을 공공 목적에 사용하고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때 지정된다.

병불련은 1999년 10월 창립 이후 국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근로자, 티벳난민단체 등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해왔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로 본격 출발해 전국 25개 회원 병원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 410여 봉사자들이 자비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류재환 회장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으로 후원액에 대해 기부영수증 발행을 통한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불련은 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수좌 적명 대종사
영결식·다비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글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수좌이신 적명대종사 영결식·다비식을 12월 28일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도와 봉암사 대중 그리고 전국선원수좌회는 스님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봉암사 태고선원 수좌 적명 대종사 49재 안내		
초재	12월 30일 (음.12월 5일)	오전10시
2재	1월 6일 (음.12월 12일)	오전10시
3재	1월 13일 (음.12월 19일)	오전10시
4재	1월 20일 (음.12월 26일)	오전10시
5재	1월 27일 (음. 1월 3일)	오전10시
6재	2월 3일 (음. 1월 10일)	오전10시
막재	2월 10일 (음. 1월 17일)	오전10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문의 : 054)571-9088

불기 2563(2019)년 12월 28일

◈ 수좌 적명 대종사 문도 ◈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대중 ◈ 전국선원수좌회